2025년 6월 15일 삼위일체 대축일 (Holy Trinity Sunday)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81 (영광의 주 성삼위)	512 (주여 우리는 지금)	170 (자애로운 예수)	82 (주 찬미)

제 1독서 | 잠언 8,22-31

화답송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좌)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우)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좌)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 2독서 | 로마서 5,1-5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6,12-15

Today's Gospel (John 16,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have much more to tell you, but you cannot bear it now. But when he comes, the Spirit of truth, he will guide you to all truth.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but he will speak what he hears, and will declare to you the things that are coming. He will glorify me, because he will take from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Everything that the Father has is mine; for this reason I told you that he will take from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삼위일체 교의(Dogma)의 형성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항-253항>

249항. **삼위일체에 대해 계시된 진리는 초기 교회 때부터 주로 세례에서 그 신앙의 생생한 근원**이 되었다. 세례를 위한 신앙 고백문에 표현된 이 진리는 **설교나 교리 교육, 교회의 기도 안에 정형화**하였다. 이러한 정형화는 사도들의 글에서 이미 발견되는데, 성찬 전례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은 이를 증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2코린 13,13).

250항. **초세기 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왜곡시키는 오류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이를 더 명확하게 정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교회 교부들의 신학적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각으로 떠받친 옛 공의회들의 업적이다.

251항. **삼위일체 교의를 정형화하고자 교회는 철학적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 '실체'(substantia), '위격'(persona 또는 hypostasis), '관계'(relatio) 등의 고유한 용어들을 발전**시켜야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신앙을 인간적 지혜에 종속시키기보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한히 초월하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까지도 의미하게 된 이 용어들에,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252항. 교회는 '실체'라는(때로는 '본질 essentia'이나 '본성 natura'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단어를 단일성에서 본 하느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실제적 구분에서 본 삼위를 가리킬 때, '관계'라는 단어는 그 위격들의 구분이 한 위격과 다른 위격들의 관련에서 존립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사용한다.

253항.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한다.** 하느님의 삼위는 신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며, 성자께서는 성부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다. 곧 본성으로 한 하느님이시다." 삼위의 각 위는 이러한 실재, 곧 하느님의 실체, 본질 또는 본성이시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희망을 완전하게 실현한다.> - Fr.프랑수아 바리용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 아닌 다른 것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려 하면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의 경험과, 우리 모두 사랑에서 다소간 겪게 되는 실망을 출발점으로 삼아 묵상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결혼,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간의 사랑, 우정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되는 사랑에 대한 희원(論頗)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나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 상대방이 되는 것, 상대방과 내가 단순히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인간적 사랑의 경험에는 기쁨과 고통이 섞여 있다.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하는 놀라운 기쁨과,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이 섞여 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면, 타자란 없어지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사랑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의 「타인들의 마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자. 다니엘이 자기 부인에게 "당신과 나, 우리는 둘이 아니야."라고 말한다.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그의 부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바로 그 점이 때로는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당신이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것 같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더 이상 서로에게 줄 것이 없지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밖에는 생각하지 않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너와 내가 하나일 뿐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다. 거기에는 베풂과 받아들임이 없다.

사랑은 분리와 결합을 동시에 원한다.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 타인에게 결합될 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하나이고 싶다는 이 깊은 희망은, 인간의 조건 안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고통 없이 사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사랑의 희망은 영원히 채워진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 자체인 것이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어떤 혼동도 있을 수 없게, 서로 서로 실제로 구분된다. 아버지는 아들 안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아들은 아버지 안으로 사라지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분들은 완전히 구별되면서 하나이시다. 삼위는 나란히 놓여 있는 세 위격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는 세 자애(患愛)이신 것이다.** 각자는 다른 두 위(立)를 향함으로써만 스스로에게 향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을 모두 주심으로써만 아들과 구별되는 아버지로 존재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도약 그 자체가 되심으로써만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아들로 존재하신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스스로, 스스로를 위해 구성된 위격이 아니신 것이다. 아들을 낳는 행위를 통해 그분의 위격이 있다. 아들이 없다면 그분은 아버지이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다. 각 위격은 자기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자기가 된다.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성령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Q : 전례나 생활 안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상기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혹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긋게 되는 '성호경'을 들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성호경을 통해서 그 모든 기도가 시작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신앙고백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가장 명시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이 고백되는 부분은 바로 모든 감사기도(제1양식에서 제4양식까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침 영광송',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여 그 내적인 나눔의 신비에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전능하신 하느님께 끝없는 찬미와 영예와 영광을 드리게 됨을 뜻합니다.

공지 사항

1. 성가대 모집

거룩한 미사 안에서 성가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가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로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 canberra.kcc@gmail.com**

2. 여정 '시즌 4' - 영적독서 모임

- 첫 모임이 6월 18일(수)에 있습니다
-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줌 온라인 모임)**
- <프랑수아 모리아크의 예수>, 78p까지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만났습니다>, 54p까지
  <정채봉 시집>, 마음에 드는 시 한 편 고르기.

3. 대전교구 한정현 스테파노 보좌주교님 방문

대전교구 보좌주교님께서 우리 캔버라 한인성당에 방문하십니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평일미사가 **7월 8일(화)에 저녁 7시**에 아란다 성당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미사 참례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후 교육관에서 간식나눔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 나눔>

Wolfgang Amadeus Mozart: Missa in C major, KV 167

* 모짜르트가 1773년 잘츠부르 크에서 작곡한 미사곡으로, 정식 제목은 "Missa in honorem Sanctissimae Trinitati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위하여)입니다.
이 곡은 삼위일체 대축일을 위해 작곡되었으며, 잘츠부르크의 '삼위일체 성당'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미사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6월 1일	유아·청소년: 24명	성인: 45명
6월 8일	유아·청소년: 24명	성인: 42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6월 15일)	요한반
다음주 (6월 22일)	루카반

| 우리들의 정성 | (6월 7일 ~ 6월 13일)

봉 헌 금	$ 184			
교 무 금	$ 610			
구민식	권묘순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한상지			

| 기도 지향 |

* 6월 22일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